

“가정생활과 수행은 하나”

‘올바른 가족 신행문화’ 만들기 앞장서 온 박용진 거사

집안이 바로 절이다. 가족이 서로 도반이고 생활 자체가 신행이고 수행이다. 삶과 신행이 하나인 가족이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박용진(부산 아카데미 학원 원장·42) 거사 가족. 박 거사가 지도법사로 부인 김금영씨(40)를 비롯해 대청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들 박석원(6년·12), 딸 박혜인(3년·10), 둘째아들 박도원(1년·8)이 신도인 셈이다.

아침 6시, 박 거사 가족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 웅기종기 앉아 인터넷 다음 카페에 개설된 무비 스님의 ‘엄화실’ 방으로 들어가 경전공부를 하는 일이다.

7년째 계속된 내용으로 큰 아들 석원군은 사이버 불교대학을 최연소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어 주변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원군은 최근 합류한 동생들과 함께 저녁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 108배와 30분 참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석원군은 “집에서 참선을 하면서부터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아무리 오래 앉아 공부를 해도 싫증이 안나 학습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즐거워했다.

석원군은 영어와 한자로 된 <금강경>을 보며 잘못된 풀이와 오자도 잡아 낼 정도로 실력이 쟁쟁하다.

대체 무엇이 이 어린 학생을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했을까? 말로만이 아니라 신행 생활을 몸소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행한 아버지 박용진 거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박 거사는 “매일 아침 밥 먹듯 자연스럽게 일인데 세삼스럽게 취재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그동안 한사코 취재를 거절해왔다. 결국 2월 3일 부산 기장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해 어렵게 가족 신행을 엿볼 수 있었다.

“20대 중반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성철 스님을 만나러 백련암을



찾아 3000배를 하고 100일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 때 성철 스님께서서는 불자라면 절에서만 절과 참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집에서도 항상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거사가 가족들과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박 거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 힘을 쏟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치게 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시간 낭비 없이 정진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소신도 덧붙였다.

아버지로서 인생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보다 불법의 진리를 통해 자신의 인생들을 당당하게 만들어갈 지혜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7년전부터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먼저 실천을 통해 ‘수행생활’을 보여줬다. 그런 성실한 모습이 어린 자녀들의 눈과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

했고, 처음엔 호기심에서 출발한 신행생활이 이젠 자발적인 가족 법회로 승화했다. 학원을 운영중인 박 거사는 요즘도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참선과 절수행 및 경전 공부를 한다.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박 거사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수행에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 수행 합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108배나 3000배를 강요하고 힘들게 끌고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배, 20배, 그리고 참선 시간도 10분 20분 늘렸지요. 지난해에는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3000배까지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한 번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잘했고 돌아와서는 108배 정도는 정말 쉽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마다 꾸준히 하며 점차 근기에 맞춰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거사는 신행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았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심하는 습관이 길러지면서 형제간, 가족간의 우애와 사랑이 깊어짐을 느꼈다. 참선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되다보니 독서 시간도 길어져 자녀 모두 공부에 취미를 붙였다. 그 결과 과외공부 한 번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

박 거사는 “영어 등 사교육을 위해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며 부모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 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신행 생활 속에선 학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며 “한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는 동안 인성에 대한 대부분의 영향을 가족에서 받는 만큼 올바른 가정 신행 문화 속에서 불법에 의지하며 사는 모습은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자녀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하성미 기자, 삽화=김홍인 화백



설날 어른스들의 공동차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2월 5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공동차례제내기’를 마련했다. 직접 차례를 준비하기 어려운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관장 일문 스님의 축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설, 분향강신, 참식, 진찬, 헌다, 삼시, 사신, 철시반복, 사신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차례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와 복지센터 직원 등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렸다. 글/사진 · 박재원 기자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조계종 학교측, 대책위 구성 본격 활동 나서기로

교육부는 2월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을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과 동일하게 발표했다. 이 명단에 동국대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교육부가 예비인가시 배제된 지역의 대학에 추가선정 여부를 등에 따라 동국대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교계는 지난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 예비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 단, 동국대 등 사대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로스쿨 재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1월 31일 교육부를 향한 방문한 마친 오영교 총장이 지관 스님(총무원장)을 찾아가 지역안배 문제 등 동국대가 부당하게 탈락한 경위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2월 1일 동국

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도 지관 스님을 찾아 “동국대가 반드시 로스쿨에 선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2월 2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모인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긴급 연석회의 후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교육부총리 사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로스쿨 정원 제한 폐지 ▲로스쿨 인가 차기정부 이월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 중앙신도회, 동국대 등이 참여한 (가칭)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대책위는 2월 15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로스쿨 탈락 학교 중 2월 2일 조선대가 제일 먼저 심사 서류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단국대·청주대 등이 소송을 내는 등 탈락한 학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교육부와 법교위에 재심의 촉구 항의공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동국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순열 부총장(동국대)은 “2월 5일 증거보전 신청을 시작으로 행정조치에 나서 예정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시위 등도 계획돼 있다. 여론 환기용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히히당의 세상만사

■ 바람의 아들

이승과저승이 둘이라면 나는 기웃 기웃 홀로 걷는 두발 나그네.
이승과저승이 하나라면 나는 풀꽃 홀로 걷는 외발 나그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김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태선 변호사)

독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 가득하소서

설 연휴 관계로 급주 신문 20면 발행합니다

본지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필자 이우상 교수 ▶14~15면

이집트의 고대왕릉 피라미드를 읽다

달마 선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스승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에 바탕하므로 간명하다
불법 역시 대신 삶을 살아 줄 수 없다는
진리에 바탕하여 주체성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찾아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으므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개정판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일신을 위하는 유위법은 100번을 닦아도 죽으면 함께 없어지지만 마음을 구하는 무위법은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물이 되므로 마음 닦는 길을 「금강경」이라 한다. 불교의 주체는 육신이 아닌 마음이고, 마음은 생사도, 남녀도, 더럽다, 좋다고 없이 온갖 모습으로 윤회할 뿐 불생불멸이므로 영원을 살기 위해 마음을 구함이다. 그러나 범부는 나무의 뿌리는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뿌리인 마음은 없다 하고 보이는 일신만 유일한 자신으로 알고 부처를 구하느라 절하고 진언, 기도, 염불과 경전을 읽는다. 이 같은 다문(多聞)을 깨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신국판 / 509페이지 /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6층 주문전화 02)2004-8237